



UNHCR GLOBAL REPORT

# 2022 연례 보고서



발행인 전해경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23년 7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이팝

Cover Story

“도시에 공격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고향을 떠나 폴란드의 공동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83세 발렌티나(Valentina)가 유엔난민기구 직원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  
 © UNHCR/Anna Liminowicz

Contents

2022년 세계 난민 동향	4
2022년 월별 주요 활동	6
2022년 주요 활동 결과	8
지역별 주요 활동 결과	10
긴급구호	20
글로벌 캠페인 업데이트	31
재정 보고	32
한국대표부 주요 활동	36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현황	38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39

들어가는 말

2022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 이상이 전쟁, 박해, 폭력 등의 위기로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2021년 말 8,930만 명이었던 강제 실항민의 수가 15% 이상 증가했으며, 불과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하면 무려 140% 증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22년 최대 긴급구호 상황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초기 매일 2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고, 2022년 말 기준 우크라이나 인구 3명 중 1명 이상이 실항민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졌고, 취약 국가에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등을 겪었습니다. 남수단, 시리아, 로힝야 난민, 베네수엘라 사태 등 장기화된 위기로 수년에서 수십 년의 난민 생활을 견뎌온 사람들의 삶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유엔난민기구 후원자들은 아낌없이 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개인 후원자, 기업, 재단 등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후원금이 미화 12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년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장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비지정 기부금의 41%가 민간 부문에서 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2022년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함께 도전에 맞서 어려움에 처한 수백만 난민의 생명을 구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난민을 위한 여러분의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2년 세계 난민 동향

2022년 말 기준 난민 포함 세계 강제 실항민 수는 1억 84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8,930만 명보다 약 1,91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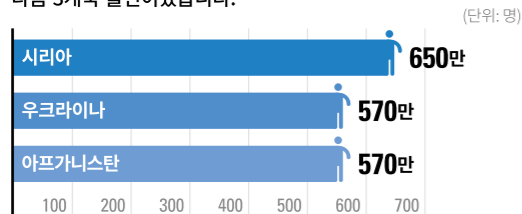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 주에서 실항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주고 있는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 © UNHCR/Joel Z. Smith

**세계 강제 실항민 수**  
**1억 840만 명**

- 난민 3,530만 명
- 유엔난민기구 보호<sup>1)</sup> 난민 2,940만 명
-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록 590만 명
- 국내 실항민<sup>2)</sup> 6,250만 명
- 난민 지위 신청자 540만 명
- 기타 국제적 보호 필요 인구<sup>3)</sup>: 520만 명

## 난민 발생 상위 3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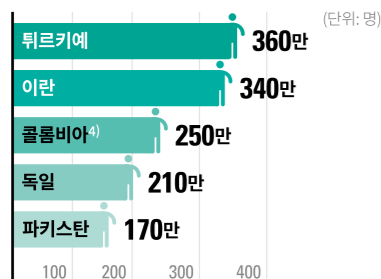
전 세계 난민(기타 국제적 보호 필요 인구 포함)의 52%는 다음 3개국 출신이었습니다.



**52%**

## 난민 비호 상위 5개국

전 세계 국가 중 시리아 주변국 튀르키예가 360만 명으로 8년 연속 가장 많은 난민을 비호했습니다.



**신규 난민 신청**  
**260만 건**

2022년 73만 400건의 신규 난민 신청을 받은 미국이 최다 난민 신청 접수국이 되었으며, 독일(21만 7,800건), 코스타리카(12만 9,500건), 스페인(11만 8,800건), 멕시코(11만 8,800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국민 6명당 1명**  
**1/6**

2022년 아루바섬이 자국민 6명당 1명에 이르는, 자국 인구 대비<sup>5)</sup> 가장 많은 난민(기타 국제적 보호 필요 인구 포함)을 받아들인 나라였으며, 레바논이 자국민 7명당 난민 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저소득국에 체류하는 난민 비율**  
**76%**

전 세계 난민(기타 국제적 보호 필요 인구<sup>7)</sup> 포함)의 76%는 중저소득국에 체류했으며, 이 중 20%가 세계 최빈국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출신국 주변국 체류**  
**70%**

전 세계 난민(기타 국제적 보호 필요 인구 포함)의 70%가 출신국 주변국에서 체류했습니다.

**귀환민 수**  
**60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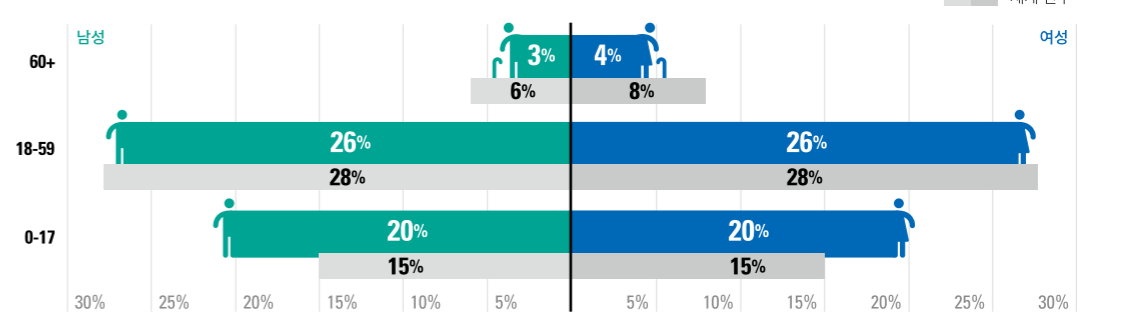
2022년 약 600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중 570만 명은 국내 실항민이었고 이웃 국가에 머물던 난민 33만 9,300명도 귀환했습니다.

**재정착 난민**  
**11만 4,300명**

각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년(5만 7,500명)보다 약 두 배 증가한 11만 4,300명이 다른 나라로 재정착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11만 6,500명의 재정착 신청을 지원했습니다.

**강제 실항민 인구 분포**  
**약 40%**

18세 미만 아동은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지만 세계 강제 실항 인구<sup>8)</sup>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반올림 처리로 합산 비율이 100%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1)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people in refugee-like situations)도 포함
- 2) 출처: 국내실항모니터링센터(IDMC)
- 3) 2022년 중반 처음 도입된 범주로, 강제로 실항해 국경 너머 출신국 밖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범주(난민 신청자, 난민,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 속하지 않지만,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기본 서비스 접근을 포함해 강제 실항에 대한 보호 등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 4쪽 참고)
- 4) 난민과 기타 국제 보호 대상자 포함
- 5) 최소 1만 명 이상의 난민을 보호하는 국가로 국한,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보호 난민 제외
- 6)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등록된 팔레스타인 난민 포함 시, 레바논(48만 7,300명 추가)과 요르단(240만 명 추가)의 자국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은 1/4로 증가
- 7)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insights/explainers/refugee-host-countries-income-level.html>
- 8) 출처: 국내실항모니터링센터(IDMC),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글로벌 동향 보고서(영문)

# 2022년 월별 주요 활동

2022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수많은 강제 실항민을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새로 발생한 긴급구호 상황과 전례 없는 위기 가운데, 함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1월



### 중동 지역 겨울나기 지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이 위치한 중동 지역에서 340만 명의 국내 실항민과 난민이 겨울나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파트너 기관과 함께 지역 내 가장 도움이 필요한 185만여 명에게 생계비, 겨울용품, 임시 거처 단열 처리 및 수리 등을 지원했습니다.

2월



###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대응 시작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어지는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심리적 보호 및 임시 거처 지원 등을 통해, 12월 말까지 우크라이나 국내 실항민 432만 명 이상을 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쪽 참조)

3월



### 모잠비크 실항민 지원

카보 델가도(Cabo Delgado) 주를 포함해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잠비크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해 북부 남풀라(Nampula) 주에서만 38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신속하게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필수 물품과 서비스를 동원했습니다.

4월



### 베네수엘라 난민 보호 및 지원

더 많은 베네수엘라인이 안전을 찾아, 야생 정글인 다리엔 갭(Darien Gap)을 통과해 중미로 이동했습니다. 2022년 전 세계 강제 실항민 5명 중 1명이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 4명 중 3명이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보호국 정부 및 파트너와 협력해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과 권리 옹호에 앞장섰습니다.

5월



### 콩고민주공화국 실항민 지원

격렬한 분쟁이 계속되면서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580만 명의 국내 실항민이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최대의 국내 실항민 국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맞서, 유엔난민기구는 여성, 어린이, 노인의 필요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임시 거처, 보호, 난민촌 조정 및 관리 부문의 인도적 협력을 이끌었습니다.

6월



### 강진이 덮친 아프가니스탄 지원

아프가니스탄 남동부가 2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40년간 이어진 분쟁과 불안정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또 다른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과 함께 구호 물품 전달, 주거지 수리, 내진 설계 주택 수백 채 건설 등으로 지원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5~26쪽 참조)

7월



### 대홍수 발생한 파키스탄 지원

7월 초 파키스탄에 폭우와 홍수가 덮쳐 난민 거주촌과 지역 사회의 생활 공간, 학교, 공동 시설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키스탄의 171개 지역 중 80개 지역이 물에 잠겼으며, 최소 790만 명이 집을 떠났고 1,700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트럭 300대 분과 공수 23회에 걸친 지원을 통해 1만 톤 이상의 물품을 전달하고, 정부 및 현지 파트너와 함께 복구 및 재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8월



###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지원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집단 피난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r) 난민촌에는 여전히 95만 2,000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지내고 있으며, 이 중 52%는 어린이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에게 보건, 식수 및 위생, 환경 보호,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9월



### 우간다 내 실항민과 난민 지원

에볼라 발병과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지속적인 난민 유입으로 우간다 내 인도적 대응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간다는 유엔난민기구 운영 자금이 가장 부족한 국가 중 하나로, 일부 의료진은 하루 최대 8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초등학교 교사들은 4,000명에 이르는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2022년 말, 우간다 활동을 위한 후원금은 필요 금액의 46%에 불과했습니다.

10월



### 예멘 실항민 지원

2022년 4월 체결한 정부군과 반군 간의 평화 협정이 만료되는 10월,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수백만 명이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전체 인구 3명 중 2명이 인도적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예멘은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유엔난민기구는 실항민들에게 생계비 보조와 지역 사회 기반 법률 및 심리 사회적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습니다.

11월



### 동아프리카 난민과 실항민 지원

5년 연속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동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이 물 부족, 기아, 분쟁 가운데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서 국내 실항민이 170만 명 이상 발생했고, 소말리아와 남수단에서 18만 명이 이상이 에티오피아와 케냐로 피난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긴급 거처와 구호품, 식수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양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12월



### 전 세계 강제 실항민 최대치 기록

2022년 분쟁, 전쟁 및 박해로 인한 실항민 숫자가 1억 명을 넘어섬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전 세계 실항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민간 후원금이 처음으로 미화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많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 2022년 주요 활동 결과

유엔난민기구는 1억 1,260만 명의 전 세계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후원으로 함께 이루어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수치

### 글로벌 파트너

**14억 9,600만 달러** 글로벌 파트너를 통한 사업 집행금  
**1,239개**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파트너  
**109개**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한 활동 현장

### 등록

**310만 명** 유엔난민기구 인구 등록 및 신원 관리 플랫폼 최신 버전(PRIMES proGres v4)에 등록된 개인  
**410만 명** 유엔난민기구 생체 정보 신원 관리 시스템(BIMS)에 등록된 개인

### 재정착

**58,457명** 유엔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아 재정착한 난민과 난민 신청자

### 긴급구호 파견

**492명** 긴급구호 대응을 위해 파견한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직원  
**35개** 새로 발생한 긴급구호 상황

### 무국적

**32,426명** 국적 취득 혹은 재확인된 사람

### 긴급구호 대응

**3,700만 달러** 전달된 주요 구호 물품의 가치  
**2,500만 명** 구호 물품을 받은 사람

### 현지 통합

**660만 명** 거주 지위를 취득 혹은 재확인받은 난민과 난민 신청자

### 자발적 귀환

**339,301명** 안전과 존엄성을 유지한 방식으로 출신국으로 자발적으로 귀환한 난민과 난민 신청자

## 분야별 모니터링 결과

### 보호

**2,120만 명**

보호 서비스에 접근한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73%**

성 기반 폭력 피해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를 위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비율

(보고국: 131개국)

### 사회적 보호

**620만 명**

정부의 사회 보호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난민과 난민 신청자

(보고국: 70개국)

**840만 명**

보호 서비스에 접근한 강제 실항 및 무국적 어린이

**78%**

강제 실항 및 무국적 어린이를 위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비율

(보고국: 125개국)

	총	어린이
난민	1,070만	440만
국내 실항민	700만	270만
기타	350만	130만

(보고국: 154개국)

### 기본적 필요

**980만 명**

현금 지원(생계비 보조)을 받은 난민, 국내 실항민, 기타 관련 대상자

(보고국: 109개국)

### 건강 의료

**1,200만 명**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은 난민과 난민 신청자, 기타 관련 대상자

(보고국: 85개국)

**994,000명**

성 건강과 생식 건강 서비스를 받은 여성과 소녀

(보고국: 57개국)

**110만 명**

정신 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을 받은 난민과 난민 신청자, 기타 관련 대상자 (어린이, 부모, 일차 양육자 포함)

(보고국: 82개국)

**140,000명**

급성 중등도 영양실조(MAM) 치료를 받은 6~59개월 영유아

**72,500명**

급성 고등도 영양실조(SAM) 치료를 받은 6~59개월 영유아

(보고국: 37개국)

### 보호 인구에 대한 책임성

**69%**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다채널 피드백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춘 국가 비율

(보고국: 144개국)

\*참고: 각 수치는 세계 유엔난민기구 사무소의 보고에 기반하고 있으며, 총 167개국이 결과 보고에 참여했습니다. 기타 관련 대상자에는 귀환민, 무국적자, 비호국 지역 사회, 그 외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성 건강 및 생식 건강 서비스에는 산전 관리, 분만 지원, 산후 관리, 가족계획 서비스, 성 기반 폭력 생존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지역별 주요 활동 결과



## 아프리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된 동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을 우선순위 국가로 지정해 강제 실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고, 남아프리카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콩고민주공화국과 분쟁에 더해 사이클론의 피해를 본 모잠비크에서의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서중양아프리카에서는 카메룬 북부 등 새로 발생한 긴급구호 상황에 대응하면서 니제르, 차드, 나이지리아 순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더보기(영문)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중양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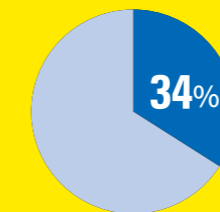
드타리버섯을 재배해 현지 시장에 판매하는 남아프리카 레소토의 난민 여성 협동조합 © UNHCR/Laura Padoan

2022년 아프리카에서는 약 3,880만 명(동아프리카 1,850만 명, 남아프리카 910만 명, 서중양아프리카 1,120만 명)의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를 보호 및 지원했고, 주요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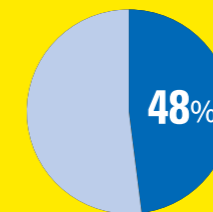
- 보호 서비스 710만 명**  
 동아프리카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은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340만 명
- 생계비 보조 120만 명**  
 동아프리카에서 생계비를 보조받은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100만 명
- 보호 인구에 대한 책임성 100%**  
 서중양아프리카에서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다채널 피드백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춘 국가 비율
- 영양 서비스 889,000명**  
 동아프리카에서 급성 중등도 영양실조(MAM) 치료를 받은 6~59개월 영유아
- 필수 의료 서비스 140만 명**  
 서중양아프리카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은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452,000명  
**성 건강과 생식 건강 서비스 154,600명**  
 서중양아프리카에서 성 건강과 생식 건강 서비스(산전/산후 관리, 분만 지원, 피임, 혹은 성 기반 폭력 클리닉 서비스 등)를 받은 여성과 소녀  
 • 2021년 결과: 85,300명
- 교육 76,600명**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 기관의 도움으로 남아프리카에서 교육에 접근한 어린이(48%는 여자아이)

###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3,880만 명  
전 세계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중 약 34% 차지

### 가용 자금 사업비



15억 1,870만 달러  
필요 자금 중 약 48% 조성

### 최상위 지출 분야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중양아프리카 합산)

2억 1,900만 달러

기본 필요 및 복지



# 중동·북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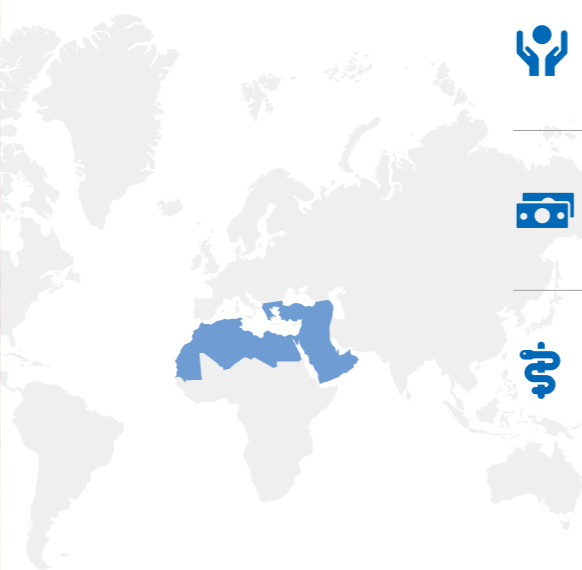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시리아와 주변국, 예멘에서의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취약성 조사에 따르면 레바논 거주 시리아인의 90%가 극심한 빈곤 상태이고, 예멘 인구의 78%가 빈곤선 아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지역 18개국 중 17개국에서 난민 심사 결정을 하고 있고, 2022년 전년도보다 60% 증가한 20만 명을 새로 등록했습니다.



더보기(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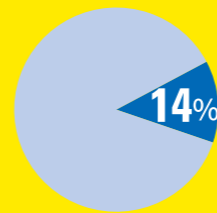
요르단 암만(Amman)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생계비 보조에 의존해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 파에르(Fajer)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그녀의 아들 누르(Nour)  
© UNHCR/Jordi Matas

2022년 중동·북아프리카에서는 약 1,610만 명의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를 보호 및 지원했고, 주요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b>보호 서비스</b> 400만 명	중동·북아프리카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은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590만 명
	<b>생계비 보조</b> 450만 명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생계비를 보조받은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620만 명
	<b>필수 의료 서비스</b> 220만 명	중동·북아프리카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은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120만 명
	<b>성 건강과 생식 건강 서비스</b> 69,800명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성 건강과 생식 건강 서비스 (산전/산후 관리, 분만 지원, 피임, 혹은 성 기반 폭력 클리닉 서비스 등)를 받은 여성과 소녀 • 2021년 결과: 60,200명
	<b>정신 건강 서비스</b> 138,300명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정신 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을 받은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b>특별 지원</b> 130,000명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튀르키예에서 특별 지원을 받은 어린이 (다른 10만 명은 아동 보호 및 사회심리적 프로그램 참여)
	<b>고국 귀환</b> 51,300명 이상	고국으로 귀환한 시리아인 • 2021년 결과: 36,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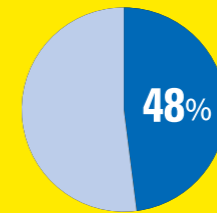
###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1,610만 명

전 세계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중 약 14% 차지

### 가용 자금 사업비



11억 7,200만 달러

필요 자금 중 약 48% 조성

### 최상위 지출 분야

1순위	4억 4,500만 달러
기본 필요 및 복지	
2순위	1억 2,300만 달러
지속 가능한 주거 및 정착지	
3순위	1억 1,500만 달러
건강한 삶	



# 아시아·태평양



더보기(영문)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의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36,200명의 국내 실향민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성의 교육과 일자리 접근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전례없는 홍수로 난민 80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군부 집권 이후 계속된 정치적 위기와 분쟁으로 2022년 약 120만 명이 새로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미얀마 교육 과정을 도입해 난민 학생의 교육 접근을 확대하는 등 콕스 바자르(Cox's Bazar)와 바산 샬(Basan Char)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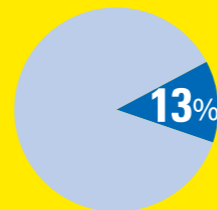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의 귀환 및 재통합 우선 지역 마을 중 한 곳에서 대안하 평화 생계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굴 왈리(Gul Wali)와 그의 아들  
© UNHCR/Oxygen Film Studio (AFG)

2022년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약 1,430만 명의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를 보호 및 지원했고, 주요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b>보호 서비스</b> 330만 명	아시아·태평양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은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260만 명
	<b>생계비 보조</b> 160만 명	아시아·태평양에서 생계비를 보조받은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911,000명
	<b>영양 서비스</b> 162,000명	아시아·태평양에서 급성 중등도 영양실조(MAM) 치료를 받은 6~59개월 영유아
	<b>필수 의료 서비스</b> 290만 명	아시아·태평양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은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130만 명
	<b>정신 건강 서비스</b> 624,400명	아시아·태평양에서 정신 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을 받은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b>재정착 신청</b> 21,300명 이상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아시아·태평양에서 제3국으로 재정착을 신청한 난민 (2021년 대비 4배 증가, 이 중 약 5,800명이 유엔난민기구 도움으로 재정착)
	<b>장학금 수혜자</b> 1,400명 이상	아시아·태평양에서 난민 고등교육 장학금(DAFI)을 받아서 교육 기관에 다니는 난민 (이 중 43%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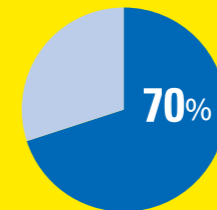
###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1,430만 명

전 세계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중 약 13% 차지

### 가용 자금 사업비



7억 6,840만 달러

필요 자금 중 약 70% 조성

### 최상위 지출 분야

1순위	2억 2,800만 달러	기본 필요 및 복지
2순위	7,500만 달러	건강한 삶
3순위	6,300만 달러	지속 가능한 주거 및 정착지





##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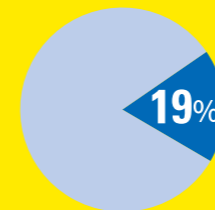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에서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만 430만 명 이상을 보호하고 지원했고, 약 500만 명은 유럽 연합의 임시 보호 조치 혹은 이와 유사한 국가 제도 아래 보호를 받았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이주 관리 기관과 협력해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한 보호 절차와 서비스 접근을 개선했습니다. 한편,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 신청 절차, 연대, 국가간 책임 분담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들고 난민과 이주민의 유럽 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협력했습니다.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의 루마니아행 버스 탑승을 돕고 있는 유엔난민기구 직원 © UNHCR/Mihai von Eremia

2022년 유럽에서는 약 2,180만 명의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를 보호 및 지원했고, 주요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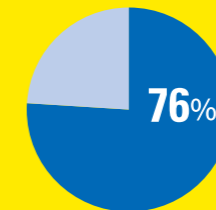
	<b>보호 서비스</b> 270만 명	유럽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은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606,000명
	<b>보호 서비스</b> 795,800명	유럽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은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어린이
	<b>생계비 보조</b> 200만 명	유럽에서 생계비를 보조받은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463,000명
	<b>정신 건강 서비스</b> 77,200명	유럽에서 정신 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을 받은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b>보호 인구에 대한 책임성</b> 60%	유럽에서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다채널 피드백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춘 국가 비율
	<b>재정착 신청</b> 23,800명 이상	유럽 국가로 재정착 신청한 난민 (이 중 21,300명 이상이 재정착, 전체 재정착의 37% 차지)
	<b>해상 도착 난민과 이주민</b> 159,400명	지중해와 북서아프리카 해상으로 유럽에 도착한 난민과 이주민 (작년 대비 29% 증가)

###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약 2,180명  
전 세계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중 약 19% 차지

### 가용 자금 사업비



15억 2,000만 달러  
필요 자금 중 약 76% 조성

### 최상위 지출 분야

1순위	6억 5,900만 달러
기본 필요 및 복지	
2순위	1억 3,900만 달러
영토, 등록, 서류 작업에 대한 접근	
3순위	4,700만 달러
지속 가능한 주거 및 정착지	



# 아메리카

인권 침해와 박해, 폭력, 불안정과 불평등 등으로 주로 강제 실향이 발생한 아메리카에서는 보호 중심의 입국 시스템 개선, 난민 신청 및 기타 보호 조치에 대한 접근 보장 등을 통해 각국을 지원합니다. 약 25,000명이 서류 발급 절차 지원을 받았고, 177,000명은 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록적인 수의 사람이 미국으로 향하면서, 모니터링 등 국경 지역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에서 폭력과 인권 침해로 100만 명 이상이 2022년 집을 떠난 가운데, 난민 신청 시스템의 개선 및 디지털화 등을 포함해 지역 내 포괄적인 난민 보호와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정부 당국과 협력해 브라질과 멕시코로 들어온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사회 통합을 도왔습니다.



더보기(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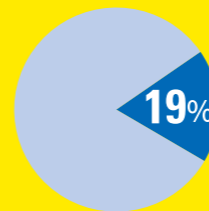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볼리비아에서 열린 사업가 행사에서 자신들의 기량과 실력을 선보이는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들 © UNHCR/Sara Aliaga

2022년 아메리카에서는 약 2,150만 명의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를 보호 및 지원했고, 주요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b>보호 서비스</b> 160만 명	아메리카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은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110만 명
	<b>471,000명</b>	아메리카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은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어린이
	<b>생계비 보조</b> 193,600명	아메리카에서 생계비를 보조받은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261,000명
	<b>보호 인구에 대한 책임성</b> 86%	아메리카에서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다채널 피드백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춘 국가 비율
	<b>필수 의료 서비스</b> 187,200명	아메리카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은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 2021년 결과: 241,200명
	<b>성 건강과 생식 건강 서비스</b> 40,400명	아메리카에서 성 건강과 생식 건강 서비스(산전/산후 관리, 분만 지원, 피임, 혹은 성 기반 폭력 클리닉 서비스 등)를 받은 여성과 소녀 • 2021년 결과: 44,800명
	<b>정신 건강 서비스</b> 91,500명	아메리카에서 정신 건강 및 사회심리적 지원을 받은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b>재정착 신청</b> 9,378명 이상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아 아메리카에서 제3국으로 재정착을 신청한 난민 (최고 수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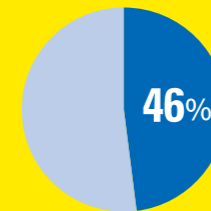
###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2,150만 명

전 세계 강제 실향민과 무국적자 중 약 19% 차지

### 가용 자금 사업비



3억 5,650만 달러

필요 자금 중 약 46% 조성

### 최상위 지출 분야

1순위	9,900만 달러
기본 필요 및 복지	
공동 2순위	3,400만 달러
자립, 경제적 포용, 생계 지원	
공동 2순위	3,400만 달러
지역 사회 참여 및 여성의 역량 강화	

# 긴급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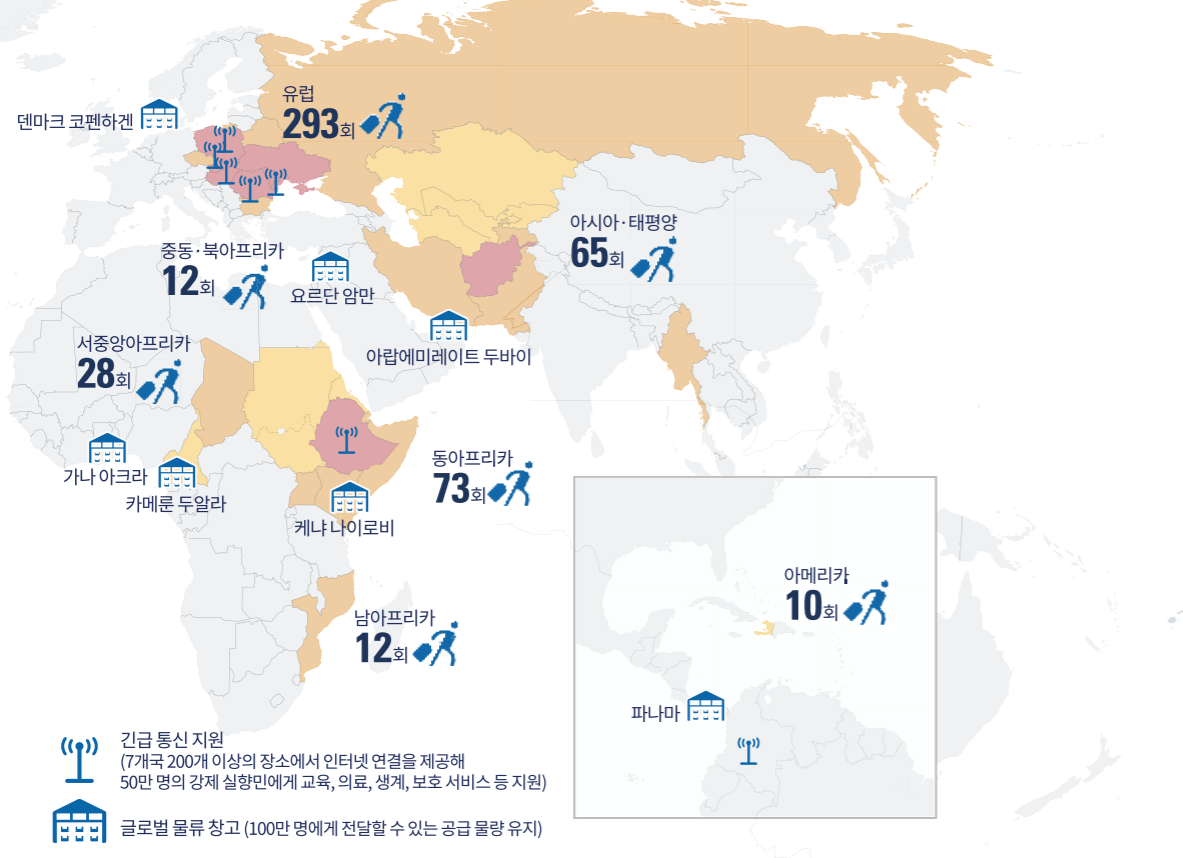
고향을 떠나는 결정은 극한 상황에 내몰려 한순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든, 국내 실항민으로 남든, 대부분이 필수품을 포함해 평생 소중한 간직해 온 재산을 뒤로 하고 거의 빈손으로 낯선 곳에 도착합니다. 불확실한 현재를 마주하고 있으며, 언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 물품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폴란드에 있는 유엔난민기구 물류 창고 © UNHCR/Maciej Moskwa

## ① 2022년 긴급구호 대응

유엔난민기구는 2022년 긴급구호 3단계를 선포한 우크라이나와 주변국,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를 포함해 전 세계 52개 지역에서 긴급구호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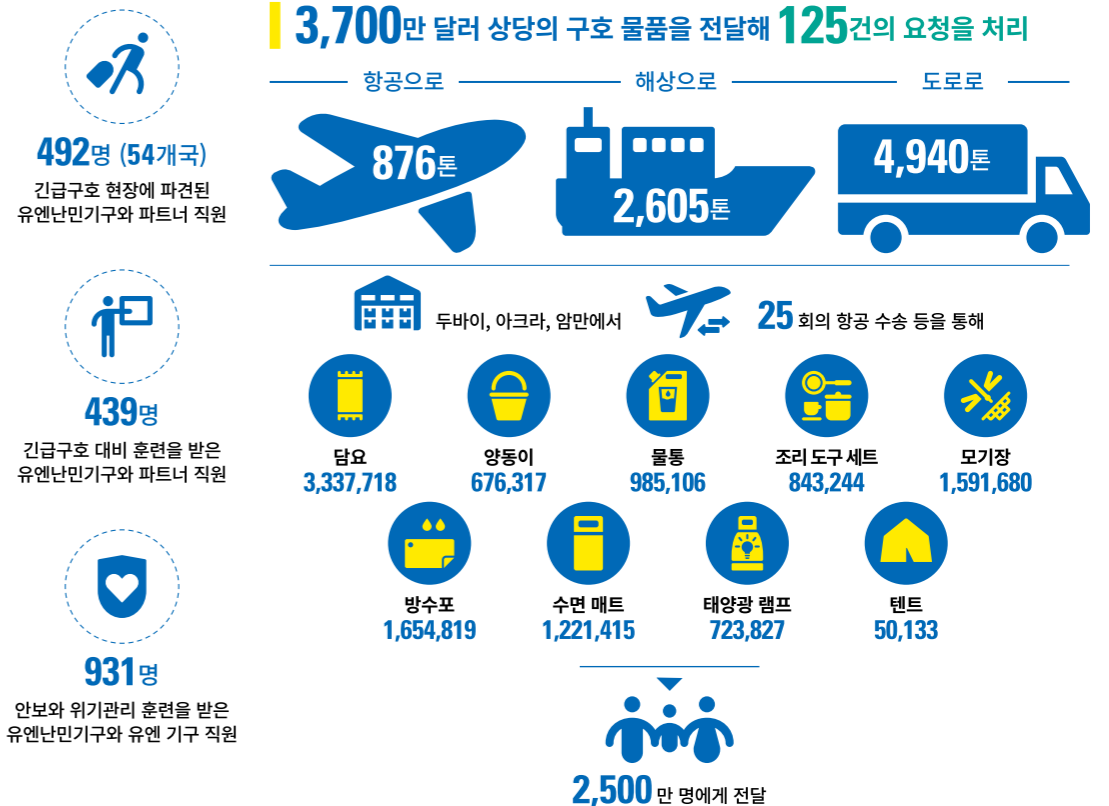
### 유엔난민기구 긴급구호 선포 단계\*

3단계	8개 지역	지구 전체의 대응 요구 단계 (사태의 규모, 확산 속도, 복잡성, 영향 등을 고려해 지역 대응 역량을 넘어선, 예외적으로 심각한 상황 발생 시)
2단계	21개 지역	지역 사무소 지원 강화 단계 (급속도로 전개되는 인도주의적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과 자원이 요구되는 경우)
1단계	23개 지역	사전 준비 및 초기 대응 단계 (기존 대응 역량을 넘어선 인도주의적 긴급 상황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 2022년 새로 발생, 혹은 2021년 발생되어 2022년까지 이어진 긴급구호 상황을 포함하며, 여러번 선포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 표시

## ② 긴급구호 물품 지원

필수 생활용품, 위생용품, 임시 거처 자재 등을 조달하여 글로벌 물류 창고에 비축해 놓고, 긴급구호 발생 초기 며칠 내에 필요 지역에 핵심 구호 물품을 신속히 전달합니다. 2022년 25건의 항공 수송을 포함해, 미화 3,70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2,500만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 ③ 긴급구호 전문가 급파

유엔난민기구 인력은 보호 담당관, 물류 담당관, 보건 전문가, 엔지니어, 기타 다양한 역할을 맡은 숙련된 글로벌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긴급구호가 지구 활동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 72시간 이내 급파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이러한 대비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긴급구호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 긴급구호 포커스

## 1 우크라이나

몰도바 국경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난민들 © UNHCR/Caroline Bach

### 사태 현황 및 유엔난민기구 대응

2022년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태 발생 1년 후, 우크라이나 인구의 3분의 1이 집을 떠났습니다.

대규모 위기에 대응해 유엔난민기구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 및 현지 파트너와 함께 긴급구호에 착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된 전쟁으로 취약해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들의 트라우마와 고립감을 완화하기 위해 상담, 심리사회적 지원, 아웃리치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보온 담요, 히터, 위생용품, 조리도구 세트, 매트리스, 방한복 등을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광범위하게 활동했습니다. 수용, 임시 거처 및 식량 제공, 생계비 보조 등 즉각적인 대응에서 난민을 통합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으로 전환해, 난민이 고국으로 귀환하기까지 이들의 교육, 의료, 취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조성된 미화 6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후원금 덕분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국내 실항민**  
530만 명 이상

**난민**  
800만 명 이상

**인도적 지원 필요 인구**  
1,760만 명 이상

### 주요 지원 활동 2022년 2월 24일~2023년 2월 23일

#### 우크라이나

**총 475만 명 지원**

**156만 명**  
겨울나기 지원, 목표 150% 초과 달성

**106대**  
발전기를 전국 각지의 시설에 제공해 252,000명 이상에게 난방과 연결망 등 지원

**717회**  
인도적 호송을 통해 652,000명 이상 지원

**110만 명**  
생계비 보조를 통해 긴급 필요 지원

**190만 명**  
비식량 물품 지원

**130만 명**  
사회심리적 지원, 법률 보조 등 보호 지원

#### 우크라이나 주변국

**476,000명**  
불가리아, 폴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서 생계비 보조

**315,000개**  
겨울 구호품(담요, 매트리스, 방한복 등) 전달

**39개**  
블루닷 센터에서 보호 정보 및 상담 제공, 보육, 의료, 법률 보조 등에 대한 소개 및 위탁 지원



올가와 아들 니키타(Nikita) © UNHCR/Diana Zeyneb Alhindawi

### 후원이 만든 변화

## 고향 집으로 돌아온 우크라이나 실항민 올가



올가 영상 보기

올가(Olga)는 전쟁이 보로디얀카(Borodyanka) 고향 마을을 덮친 순간을 기억합니다. “당시 집에 있었는데 집에 로켓이 떨어졌고, 엄청난 폭발의 진동이 느껴졌어요. 바로 주방 창문이 산산조각 났죠.” 올가와 아들은 주변이 온통 폭발로 뒤덮인 가운데 약 10km 떨어진 이웃 마을로 피난했고 그곳의 친구들이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지역도 공격받아 전기와 연료 공급이 끊겼고, 3월 10일, 올가와 아들은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서쪽으로 500km 떨어진 르비우(Lviv)로 다시 피난을 떠났습니다. 고향 마을과 집의 운명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4월 25일 고향 집에 돌아온 올가는 끔찍한 광경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창문은 모조리 깨졌고 지붕도 부서졌더라고요. 물건은 모두 도난당했고 TV에는 총탄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올가는 40년 넘게 거의 평생을 살았던 집의 잔해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에는 어렸을 때 자신이

살았고 자기 자녀를 키웠던, 사랑하는 집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올가는 상황을 극복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늘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엔 그럴 수 없었어요. 집을 고칠 돈이 없었거든요.”

전쟁의 참화를 겪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지 수리 및 임시 거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올가의 집에도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이 방문해 복구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아니었다면 창문이나 지붕을 고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18,000명 이상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올가가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현장 직원 이야기



우크라이나 사무소  
빅토리아  
티우티우닉  
보호 담당 직원



유엔난민기구 직원 빅토리아 © UNHCR/Alina Kovalenko

정전, 미사일 공격, 공습경보. 이것이 제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Dnipro)에서 일하고 있으며 직원인 저 또한 이 전쟁으로 실랑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파트너, 지역 당국 및 기타 단체와 함께 국내 실랑민과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는 제 역할에 전적으로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랑민들은 대부분 매일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낯선 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보통 고립되어 지내게 되고, 어디서 숙소와 음식, 의약품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기쁨, 심지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전해주고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제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제가 제 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입니다.**

물론, 저의 일상과 여가, 교류 집단, 심지어 사생활까지 제 삶 전체가 영향을 받았지만, 저는 스스로의 울타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일을 통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한 팀으로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상사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헌신적인 롤모델로서 제게 동기를 부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난민 보호는 제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이제 제 삶의 일부입니다.**

- 빅토리아 티우티우닉(Viktorii Tiutiunyk) -

긴급구호 포커스:  
②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살고 있는 실랑민 하셈(Hashem)과 딸 세타라(Setara) © UNHCR/Oxygen Film Studio (AFG)

사태 현황 및 유엔난민기구 대응

2021년 8월 사실상 당국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2022년은 이미 폭력의 유산과 극심한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위협과 불확실성이 더해진 한 해였습니다.

자연재해 또한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역경을 가져왔습니다. 2022년 6월 팍티카(Paktika)와

코스트(Khost) 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약 1,000명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70% 이상의 집이 파괴 혹은 파손되었으며, 이미 극도로 고립되고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던 아프간 주민들은 전기, 수도, 임시 거처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1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 찾아와, 분쟁과 재난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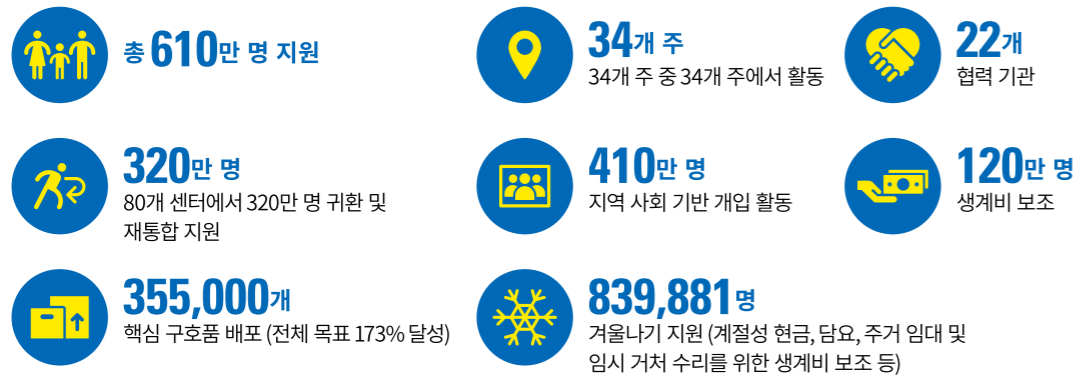
하지만 2022년, 개인을 포함한 민간 부문 후원자들은 아프간 실랑민을 돕기 위해 미화 2,310만 달러 이상을 후원했습니다. 이러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과 함께 아프간인들의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서 12,700명에게 텐트, 위생용품, 생활용품 및 기타 필수품을 전달했고, 지진으로 폐허가 된 16개 마을에 내진 설계 주택 1,300채를 건설해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국내 실랑민  
340만 명

인도적 지원 필요 인구  
2,830만 명

기근 위험에 놓인 인구  
600만 명

주요 지원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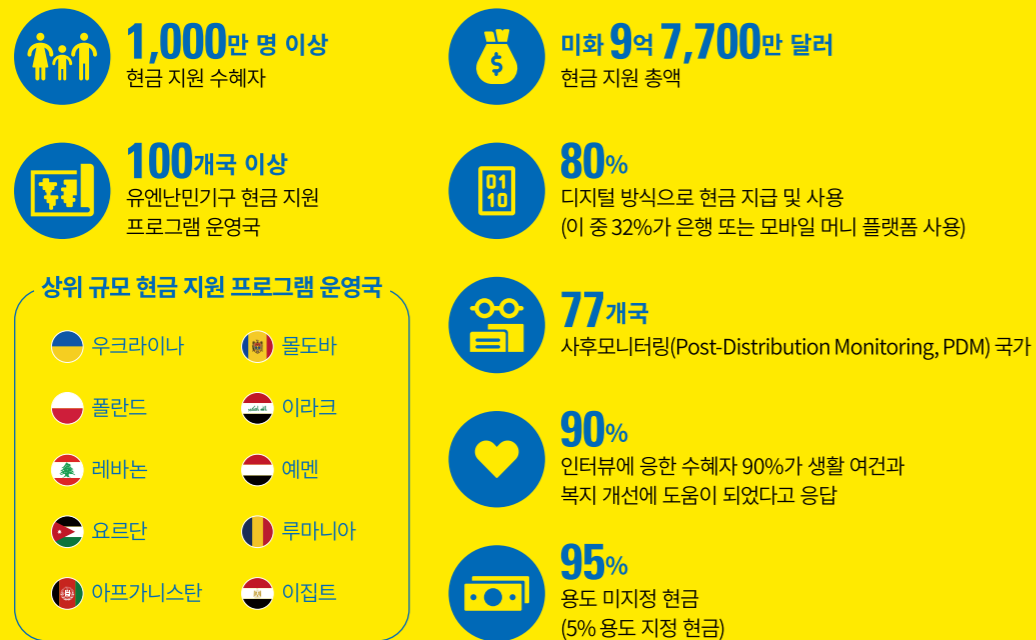


\* 현금 지원 (생계비 보조)

갑자기 고향을 떠나게 된 사람들은 보통 생계 수단을 잃게 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현금 지원은 난민이 존엄을 잃지 않게 하면서 이러한 공백을 신속하게 메워 줍니다. 또한 현금 지원은 가계 우선순위를 충족할 수 있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장 추운 계절에 대비해 따뜻한 옷을 사거나 임시 거처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가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불확실한 시기에 유연성과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유엔난민기구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겨울철, 혹은 갑작스러운 비상사태나 장기적인 인도주의 위기 등 절체절명의 시기에 생명을 구하는 필수 전략으로,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2년 현금 지원 활동 개요



동굴에서 생활하고 있는 파티마와 세 자녀 ©UNHCR/Caroline Gluck

후원이 만든 변화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아프간 가족들



파티마 영상 보기

파티마(Fatima)\*의 가족은 2년 전 분쟁을 피해 피난을 떠났다가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중부 산악지대 바미안(Bamyan) 주로 돌아왔습니다. 홀로 아이들과 함께 살 곳을 찾아야 했던 파티마는 집세를 낼 형편이 안 되었기에, 몇백 년 된 동굴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동굴은 작았지만, 가족은 이곳에서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모니터링 팀은 2022년 7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파티마의 가족을 발견하고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고, 그 이후 겨울나기 보조금과 담요도 전달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모든 물건은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샀어요.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제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파티마뿐만 아니라 많은 취약 가족이 겨울을 맞아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경기가 침체하고 식량 가격이 치솟자, 돈을 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섯 아이의 어머니 네크바흐드(Nekhbakhd)의 가족은 지금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카불의 병원에서 60만 아프가니(미화 6,730달러)를

빌렸습니다. 가족은 지역 빵집에도 외상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앞으로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다행히 가족은 두 달 전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생계비를 보조받았습니다. “덕분에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석탄과 쌀감을 사는 데도 도움이 되었어요.” 유엔난민기구의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가족이 해로운 결정에 기대지 않고 가장 긴급한 필요를 먼저 돌볼 수 있도록 존엄성과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다섯 아이를 둔 사라(Sara)는 1년 반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사라의 가족은 유엔난민기구의 겨울 지원 덕분에 요리와 난방에 쓸 전통 난로를 살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온 가족이 난로 곁에 모여 잠을 잡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더 춥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난로와 숯, 장작이 있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은 우리 가족에게 생명줄입니다.”

\*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현장 직원과의 질의 응답



레너드 줄루(Leonard Zulu) 유엔난민기구  
아프가니스탄 대표 © UNHCR Afghanistan

## 아프가니스탄 사무소 레너드 줄루 대표

### Q1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어떤가요?

아프가니스탄은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직면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실업률이 매우 높고 2년째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수십 년간 이어진 분쟁과 홍수, 가뭄, 지진 등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성이 이동, 학업, 직업 활동에 더 큰 제약을 겪으면서 인권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 Q2 지난 몇 년간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사실상 당국이 집권한 2021년 8월 이후 대규모 분쟁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유엔난민기구는 아프가니스탄의 34개 주 전체로 활동을 확대해 9개 사무소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부터 아프간의 사실상 당국이 아프간 여성이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게 중요한 인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490명의 여성이 현지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교육 및 보건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많은 여성이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계 훈련 프로젝트, 가구 조사 (특히 아프간 가정의 약 10%를 차지하는 여성 가장 가구), 보호 모니터링, 아동 보호, 성 기반 폭력 등 여러 활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직원의 현장 출장이 불가능할 경우, 여성의 필요를 파악하고 인도적 지원의 전달과 영향을 모니터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Q3 유엔난민기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트너 및 지역 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요?

**현재 14개 국내 NGO 및 4개 국제 NGO가 우리의 직접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여성 직원이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지역 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지역 사회 주민들부터 보호 모니터링 정보를 수집해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 및 실행하고 있으며, 가구 평가, 포커스 그룹 토론, 개인 인터뷰 등을 활용합니다. 또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우려 사항과 요청을 제기할 수 있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 Q4 제 후원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을 어떻게 돕고 있나요?

유엔난민기구는 거의 전적으로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작년 유엔난민기구는 아프가니스탄 활동을 위한 필요 기금의 73%를 확보했습니다. 전체의 89%는 공공 부문에서, 9.9%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금에서, 1.1%는 민간 부문에서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매우 복잡한 사업 환경에 놓여 있기에 가능한 한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금에 의존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기금은 특히 2022년 6월 아프가니스탄 남동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 후원이 만든 변화



난민촌에서 오키피 그린 에너지를 운영하는 바스코  
© UNHCR/Samuel Otieno

## 3 긴급구호 이외 기타 지역

## 케냐 난민촌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바스코

바스코(Vasco)가 케냐 카쿠마(Kakuma) 난민촌에서 태양광 패널을 열심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난민촌 안팎의 200개 사업체와 수많은 난민 가정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회사, 오키피(Okapi) 그린 에너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불빛을 얻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뛰어들 생각을 했어요.”** 바스코가 이야기합니다.

바스코는 12년 전 고향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진 분쟁을 피해 카쿠마로 왔습니다. 그는 처음엔 지역 사회 단위로 시작해서 민간 기업인 오키피 그린 에너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여러 파트너 기관의 도움으로 태양광 미니 그리드를 설치하고 그 규모를 20kW급 그리드로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콩고 난민이자 세 아이의 엄마인 비티쇼(Bitisho)도 이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비티쇼는 인쇄 및 사진 서비스와 함께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전에는 전기가 계속 끊겨 고객들이 불편을 겪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게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오키피 미니 그리스 덕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사는 카쿠마 난민촌과 인근 칼로베예이(Kalobeyei) 정착촌의 난민 중 1%만이 이러한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나머지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디젤 미니 그리드 등 값비싸고 불안정한 대체 전력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바스코와 같은 난민 사업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칼로베예이에서는 다른 파트너 기관과 함께 60kW급 태양광 미니 그리드를 설치해 4개의 학교, 2개의 병원, 유엔난민기구 현장 사무소, 수백 개의 소규모 사업체와 가정에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바스코는 난민촌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난민들이 돈을 절약해 다른 긴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현재 1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난민입니다.



바스코 영상 보기

 후원이 만든 변화



마르셀리노 영상 보기



와라오족 이웃들을 위해 일하는 루세티 ©UNHCR/Gabo Morales

## 브라질에서 와라오족 이웃을 돕는 루세티와 마르셀리노

초등학교 교사 출신 루세티(Lucetti)는 타고난 문제 해결사입니다. 2년 전 베네수엘라 고향을 떠나서 처음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생활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그녀는 와라오(Warao)족 이웃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 유엔난민기구의 파트너 기관에서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마나우스(Manaus)에 도착한 와라오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이 3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000명이 와라오족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영양실조 상태로 도착합니다. 또한 고품의 와라오족은 토착어만 구사하고 스페인어를 잘 못해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에서 이중 언어 장벽을 겪습니다. 의사소통 문제로 문서가 누락되거나,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름 철자가 틀린 신분증을 지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와 머물 곳을 구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루세티는 새로 도착한 와라오족에게 난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이들이 의료 및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관공서나 영사관에서 행정 업무를 돕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닌 친척과 오거나 혼자 피난 온 미성년자의 경우, 처리가 까다로운 편이며 노인들에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루세티는

말합니다. 다른 걸림돌은 대학 학위 및 기타 전문 자격증을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브라질 거주 난민과 이주민이 졸업장 및 기타 전문 자격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돕고 있지만, 와라오족 엔지니어, 간호사, 변호사, 교사 중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어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심지어 구걸을 하며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마르셀리노(Marcelino)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와라오족인 그는 2017년 아내와 다섯 자녀와 함께 브라질로 들어오기 전 베네수엘라 보건부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그는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고, 브라질로 들어와 몇 달간 구호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유엔난민기구의 파트너 기관에서 와라오족을 위한 건강 및 영양 상태 모니터 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와라오족을 위한 도시 내 전문 센터를 마련하고 새로 도착한 사람들의 의료 및 영양 필요를 파악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루세티와 마르셀리노의 기술과 지식은 와라오족 이웃들이 낯선 땅에 발을 내딛는 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루세티가 뿌듯해하며 말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람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 글로벌 캠페인 업데이트

2022년 세계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UNHCR/Houssam Hariri

### 겨울나기 지원 캠페인

영하의 기온과 혹독한 날씨, 겨울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미 취약한 상황에 놓인 난민 가족은 적절한 임시 거처, 따뜻한 옷, 난방비, 의약품도 없이 생존을 위해 식량과 온기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민간 부문 후원자들은 2021-22년 겨울나기 지원 캠페인 기간 동안,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의 난민 가족들이 1년 중 가장 추운 계절에 따뜻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미화 4,3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 UNHCR

### 난민 고등교육 캠페인

민간 부문 후원자들은 2022년에도 난민 학생들을 위한 학업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난민 고등교육(Aiming Higher) 캠페인을 통해 2022년에만 미화 900만 달러를 모금했고, 캠페인 시작 이래 총 미화 1,65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난민 학생 1,290명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 라마단 캠페인

2022년 글로벌 라마단 캠페인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전년 대비 73% 증가한 미화 1,830만 달러를 조성했습니다.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총 10만 가구 이상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UNHCR

### 식량 위기 지원 캠페인

코로나19, 기후 변화, 장기화된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 세계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난민 등 최취약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난민 가족이 굶주림으로 부정적인 대처 메커니즘에 의존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세계 난민 가족에게 생계비를 보조해, 이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식량 구입은 현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상위 2대 지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UNHCR/Tiksa Negeri



# 재정 보고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 전달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익월 제네바 본부로 보내져 연례 계획과 긴급 대응 필요에 따라 전 세계 난민 보호 활동에 사용됩니다.

© UNHCR/Pierre Albouy

## 1. 글로벌 재정 보고

### 수입

유엔난민기구 수입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조성됩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례 없는 수의 강제 실항민이 발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후원금을 조성했습니다.

2022년 수입은 약 58억 5,100만 달러였고, 2021년 이월금,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로부터 얻은 순이익 등이 더해져 2022년 총 가용 기금은 2021년보다 10억 2,700만 달러가 늘어난 61억 8,000만 달러였습니다.

#### ① 수입 세부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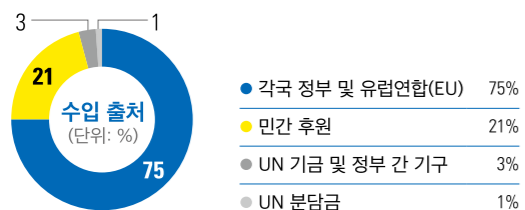
단위: 미화 달러

구분	금액	
2022년 자발적 후원금(99%)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EU)	4,375,000,000
	민간 후원	1,246,000,000
	UN 기금 및 정부 간 기구*	188,100,000
2022 UN 분담금**(1%)		42,200,000
2022년 수입		5,851,300,000
2022년 총 가용 기금(2021년 이월금, 조정 환율 및 그 외 출처의 순이익 등 포함)		6,180,000,000

\* UN 기금 및 정부 간 기구(UN pooled funding and intergovernmental donors)  
\*\* UN 분담금(UN Regular Bud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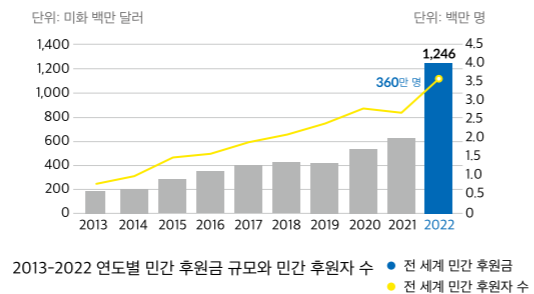
#### ② 수입 출처

2022년 수입의 약 75%는 각국 정부 및 유럽연합(EU)에서, 약 21%는 개인과 기업, 재단 등 민간 영역에서, 3%는 UN 기금 및 정부 간 기구에서 조성됐습니다. UN 본부로부터 한 해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UN 분담금 조성 수입은 1%에 불과했습니다. 후원 출처가 다양해지면서 상위 10개 후원 주체(미국 정부, 독일 정부, 유럽연합(EU), 미국 민간 영역, 일본 정부, 스웨덴 민간 영역, 일본 민간 영역, 스웨덴 정부, 스페인 민간 영역, 노르웨이 정부)의 후원금 비율은 전년도의 75%에서 69%로 줄었습니다.



#### ③ 민간 후원

2022년 민간 영역에서는 360만 명의 후원자로부터 전년도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12억 4,600만 달러를 조성했고, 전체 후원금 대비 비율은 전년도의 13%에서 21%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긴급구호에 많은 개인, 기업, 재단 후원자가 참여해 6억 2,600만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한편, 전체 비정부 후원금의 41%가 민간 영역에서 조성되어 기구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도왔습니다.



### 지출

2022년 유엔난민기구는 2021년보다 약 6억 8,910만 달러가 증가한 56억 7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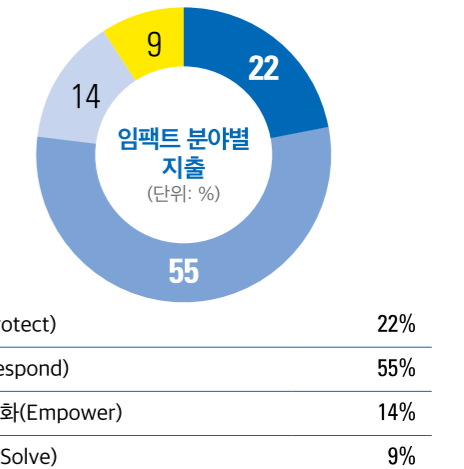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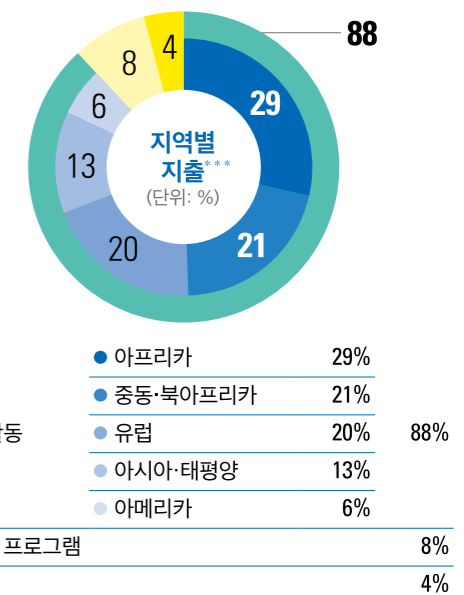
글로벌 지출의 88%를 아프리카,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등 난민 발생 지역에서 난민을 돕는 다양한 현장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서의 지출이 전체의 29%를 차지했고, 중동·북아프리카에서의 지출은 전체의 21%를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유럽에서의 지출은 전체의 20%로 크게 늘었고, 아시아·태평양에서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미얀마에서의 활동 확대로 지출이 늘어서 전체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의 지출은 전체의 6%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혁신 프로그램, 긴급구호 대응 개선, 신원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로 일부 증가해 전체의 8%를 차지했고, 본부\*\* 지출은 부서간 예산 이동 등의 이유로 감소해 전체의 4%를 차지했습니다.

임팩트 분야별로는 전체 지출의 22%가 국제적 보호 제공, 지속 가능한 난민 신청 시스템 구축, 등록 및 문서화 작업 등을 포함한 보호(Protect) 활동에 사용됐으며, 55%는 다목적 현금, 임시 거처, 구호 물품, 기본 의료, 영양 물과 위생 서비스 등을 포함한 긴급구호 대응(Respond)에 사용됐습니다. 14%는 다채널 피드백 및 대응 시스템을 통한 보호 인구에 대한 책임 개선, 성에 기반한 폭력 예방과 대응, 관련 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포함한 역량 강화(Empower)에 사용되었고, 9%는 재정착 등을 포함한 해결책(Solve) 지원에 사용됐습니다.

\* 글로벌 프로그램: 전 세계 사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난민 보호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난민 등록 및 지식 데이터 관리, 직원 교육 및 현장 안전 관리, 보급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으로 현장 운영을 돕는 활동이지만, 지원 업무의 범위와 성격을 고려해 각 지역 혹은 국가 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예산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본부 프로그램: 리더십과 경영, 정책 지원 제공, 행정 지원, 현장에 대한 관리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적용으로 합산이 정확히 100%가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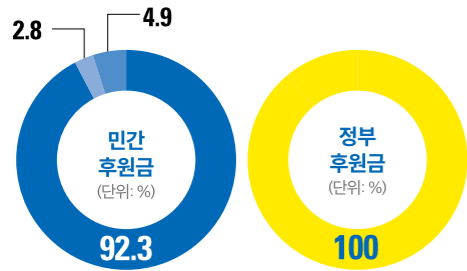
## 2. 한국대표부 재정 보고



지난 재정보고

### 수입

2022년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정부 및 민간에서 참여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더욱 많은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개인, 기업, 재단 등 민간 부문에서는 원화 총 63,332,563,485원이 조성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화 28,232,363 달러를 후원받았습니다.



**민간 후원금** 단위: 원화

구분	금액 (KRW)	비율
● 개인 후원금	58,463,024,772	92.3%
● 기업/재단 후원금	1,766,705,154	2.8%
● 기업/재단 후원 물품*	3,102,833,560	4.9%
합계	63,332,563,48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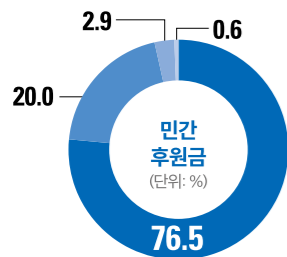
\*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에 콕스토브 지원

**정부 후원금** 단위: 미화

구분	금액 (USD)	비율
● 대한민국 정부 후원금	28,232,363	100%

### 지출

한국대표부로 보내주신 여러분의 후원금은 익월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전액 송금되며, 한국대표부의 운영 예산은 후원금이 아닌 별도로 책정된 행정 예산에서 집행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 137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보호 활동 전반에 사용됩니다

**민간 후원금** 단위: 원화

구분	지역/프로그램	금액 (KRW)	비율
● 전 세계 난민 지원 (가장 필요한 곳에)*	전 세계 137개국	48,453,867,887	76.5%
	우크라이나	5,450,486,556	8.6%
	방글라데시 로힝야	3,112,711,155	4.9%
	시리아	2,445,511,530	3.9%
	전 세계	721,301,070	1.1%
	코로나-19	393,826,547	0.6%
	아프가니스탄	327,620,215	0.5%
	파키스탄 홍수	106,539,638	0.2%
	미얀마	67,954,306	0.1%
	인도네시아	10,951,326	0.0%
● 긴급구호	동아프리카	9,974,285	0.0%
	레바논	6,856,810	0.0%
	예멘	50,000	0.0%
	전 세계 (쉘터 캠페인)	1,853,121,516	2.9%
	우간다	8,069,485	0.0%
	케냐 난민촌	162,021,727	0.3%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촌	82,389,415	0.1%
	난민 겨울 대비 지원	69,139,340	0.1%
	난민 고등교육 장학금	40,438,069	0.1%
	어린이 난민 교육	5,394,856	0.0%
● 기타	아프간 어린이 난민 교육	4,337,752	0.0%
	합계	63,332,563,485	100%

**정부 후원금** 단위: 미화

구분	금액 (USD)	비율
● 지정 기탁*	25,190,344	89%
● 비지정 기탁**	3,042,019	11%
합계	28,232,363	100%

\* 우크라이나 등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따른 유엔난민기구의 추가 대응 사업 등

\*\* 유엔난민기구 연간 사업 계획에 따른 지원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의 원칙 아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이 세계 난민 보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 영구적인 난민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기구

UN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보호와 난민 문제의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 UN기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최대 6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책임성

##### 책임 있는 난민 보호 활동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난민을 비롯한 강제 실형민과 무국적자의 결을 항상 지킵니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황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책임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투명성

##### 투명한 후원금 운영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보호 사업에 쓰입니다. 민간 부문에서 모인 후원금 전액은 익월 유엔난민기구 본부로 송금되어, 유엔난민기구의 연례 계획과 긴급구호 대응 필요에 따라 전 세계 난민 보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 한국대표부 주요 활동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캠페인 활동**  
 2022년 2월 본부의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캠페인 시작 이후, 한국대표부에서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및 모금 캠페인,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연중 지속했습니다.

6월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직접 배우와 제작진으로 참여한 2분 영화 ‘뿌리 뽑힌 삶(Uprooted)’을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후원자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영화 리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이벤트 참여자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온라인 영화제 <숫자 너머의 이야기> 개최**  
 4월 20일~5월 3일 온라인 영화제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개최해 한국대표부가 2017년부터 자체 제작한 6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에서’, ‘호다’, ‘안식처’, ‘실향민’, ‘기록’, ‘소속’을 상영했습니다.



**6.20 세계 난민의 날 행사**  
 세계 난민의 날 주제로 일러스트레이터 잔보 작가와 협업해서 만든 두 편의 작품을 6월 17일~7월 18일 홍대입구역과 을지로입구역에 게시했습니다. 6월 18일에는, 난민 인권 네트워크와 함께 ‘그럼에도, 함께(Nevertheless, Together)’라는 주제로 제7회 난민영화제를 개최해 4편의 난민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 기획전시**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8월 13일~21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 기념 기획전시 ‘일 년에 하루: 분쟁과 나, 그리고 인도주의’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긴급구호 캠페인을 중심으로, 연중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로힝야 난민촌 LPG 가스스토브 전달**  
 파트너 기관인 국제구호기구 한국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률스님)를 통해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난민촌에 미화 219만 달러 상당의 LPG 가스스토브 10만 대를 전달해, 로힝야 난민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 방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가 11월 10일~11일 방한해 외교부, 법무부, 코이카(KOICA) 등 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사회,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민간 후원자 및 파트너, 대한민국 체류 난민, 정우성 친선대사 등을 만나 전 세계 난민 문제와 유엔난민기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 임명**  
 2022년 11월 초,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신임 대표가 임명되었습니다. 전해경 대표는 2001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로 유엔난민기구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제네바 본부 모금 및 정부 관계 담당관, 유엔난민기구 아시아태평양국 특별자문관, 아프가니스탄 사무소 프로그램 관장 부소장보, 미얀마 대표를 거쳐 한국 대표로 부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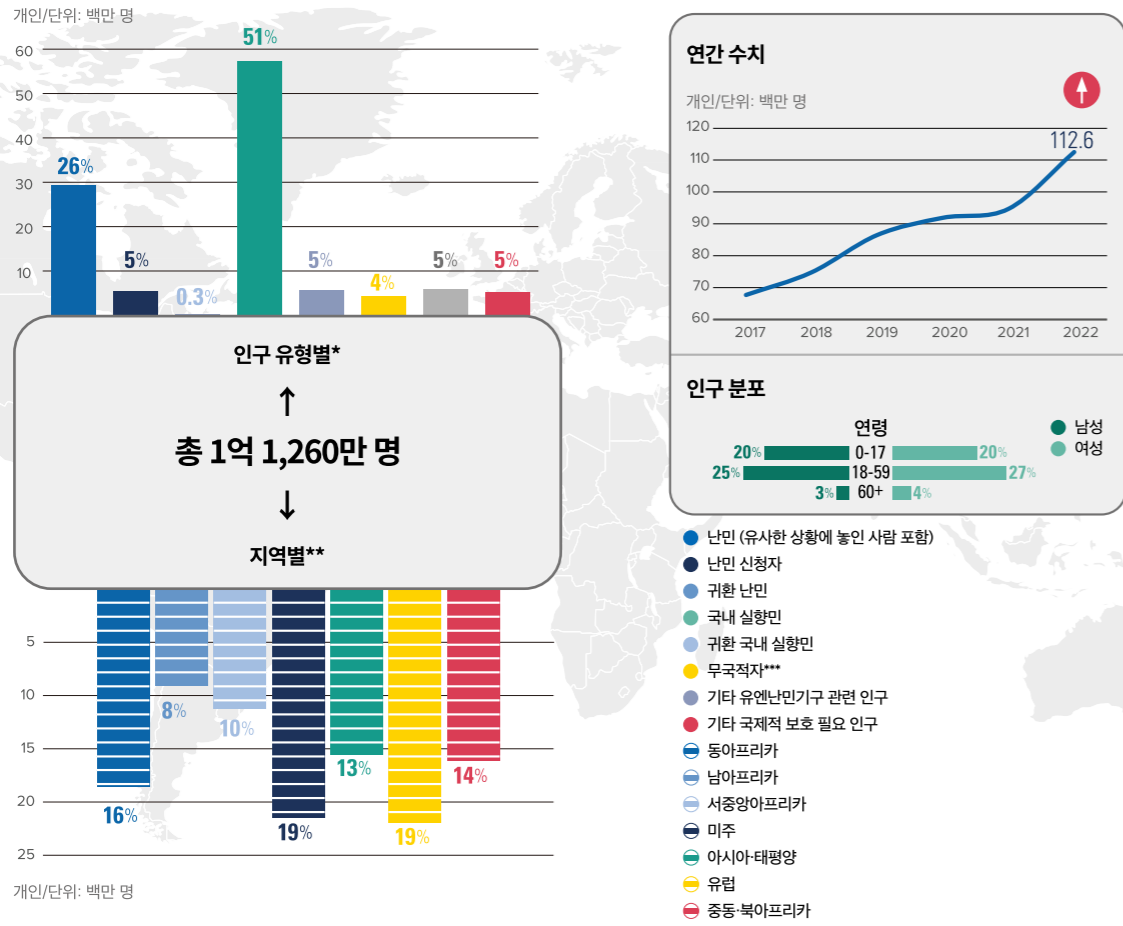


**난민 고등교육 장학 지원 캠페인 시작**  
 ‘파란 학사모’라는 이름으로 난민 고등교육 장학 지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난민 장학생들은 졸업 후 자립하여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고, 다른 난민 어린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또한 소속 지역사회가 발전하도록 힘을 보태는 동시에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국가 재건을 위해 일하는 리더로 성장하는 등 사회에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연말 사진전 개최**  
 12월 28일~31일 정우성 친선대사가 2022년 10월 폴란드에서 목도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회복력을 주제로 한 ‘그 속의 강인함’ 연말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현황 (2022년 12월 말 기준)



2022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중양아프리카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북아프리카	Total
난민 (유사한 상황 놓인 사람 포함)	4,701,272	773,024	1,563,305	800,916	6,787,003	12,395,047	2,393,663	29,414,230
난민 신청자	198,323	200,832	70,733	3,218,838	233,307	1,267,006	251,770	5,440,809
귀환 난민	191,282	11,279	78,121	6	6,898	24	51,691	339,301
국내 실항민	10,733,391	6,596,639	7,812,046	7,415,493	4,957,118	7,172,262	12,634,248	57,321,197
귀환 국내 실항민	2,487,256	1,487,444	647,051	-	778,617	191	307,607	5,708,166
무국적자	104,564	-	931,191	5,099	2,474,004	542,954	370,400	4,428,212
기타 유엔난민기구 관련 인구	112,054	29,521	140,688	4,797,202	314,413	524,886	95,777	6,014,541
기타 국제적 보호 필요 인구	-	-	-	5,217,456	-	-	-	5,217,456
<b>합계</b>	<b>18,528,142</b>	<b>9,098,739</b>	<b>11,243,135</b>	<b>21,454,248</b>	<b>14,304,600</b>	<b>21,833,415</b>	<b>16,105,087</b>	<b>112,567,366</b>

\* 인구 유형에 대한 기준은 우측 QR코드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적용으로 합산이 정확히 100%가 되지 않습니다.  
 \*\*\* 무국적자는 다른 범주에 중복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합산 비율이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난민 유형 기준

##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 UNHCR/Lucy Agiende

2022년 1억 명이 넘는 기록적인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한 글로벌 식량 및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더욱 큰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유엔난민기구는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전 세계 난민과 실항민, 무국적자들이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우측 QR코드를 통해 2022 연례 보고서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중 일부를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설문 조사

## 유엔난민기구 사명

전 세계 난민 보호와 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행동을 이끌고 조정할 의무를 UN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목표는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고자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사람이 비호를 신청할 수 있고, 타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며, 자발적으로 귀환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영구 정착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난민의 어려움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상임이사회 및 UN 총회는 난민 외에도 본국으로 돌아간 귀환민, 국내 실향민 그리고 국적이 논란이 되거나 없는 무국적자들에 대해서도 유엔난민기구의 개입을 허가하였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강제 실항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국가 및 국가기관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기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는 각국 정부, 지역 기구,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참여의 원칙을 고수하며 난민을 포함한 기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함을 믿습니다.



전 세계 135개국 530개 지역에서 2만 명 이상의 직원이 1억 1,260만 명에 이르는 전 세계 강제 실항민과 무국적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한국대표부는 2001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개소한 이래, 정부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국내 난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 세계 난민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문 연례보고서 보기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는 매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난민 보호 및 지원 현황을 각국 정부와 파트너, 후원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한국대표부는 매년 연례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한국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국영문 연례 보고서는 한국대표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UN기구입니다.**

홈페이지 [www.unhcr.or.kr](http://www.unhcr.or.kr)

전화 02-773-7272

이메일 [withyou@unhcr.or.kr](mailto:withyou@unhcr.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7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